

## 최순탁 국제이사

최순탁 이사는 대한민국 경상남도 거창 출신으로, 2025년 7월 13일부터 17일까지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린 국제라이온스협회 제 107차 국제대회에서 국제이사로 선출되어 2년 임기의 직책을 맡게 되었다.

최 이사는 건설업계에서 50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화성종합건설(주)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그는 1998년 거창동부라이온스클럽에 입회하면서 라이온 활동을 시작했고, 현재까지도 해당 클럽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동안 그는 클럽 회장, 지구 총재, 복합지구 의장, 글로벌 확장팀 지역 리더 등 협회 내 다양한 직책을 역임했다.

협회를 위한 그의 헌신과 봉사에 대한 공로로, 지구총재 표창, 복합지구 의장 표창, 지구총재 우수상, LCIF 이사장 표창, 헬핑 핸드 어워드 등 수많은 상을 수상한 바 있다.

또한, 그는 다수의 국제회장상과 국제회장 감사장을 수상했고, 프로그레시브 멜빈 존스 동지 이기도 하다.

라이온 활동 외에도 다양한 전문 및 지역 사회 단체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경상남도지사 표창, 법무부장관 표창,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등을 수상한 경력이 있다.

최 이사는 라이온인 아내 김은자 여사와의 사이에 두 자녀와 여섯 명의 손주를 두고 있다.